

## 위원회 활동

# 간호조무사 실습생 ‘산업재해에 무방비’ 호소

- 영화산업 노사정, 최근 표준보수제도 합의, 타 업종 벤치마킹 해볼 만
- ‘경계에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개최



이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자성’의 기준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와 별도로 프리랜서 보호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길 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영화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한국 영화 동반성장 협의회(이하 영화협)’의 성과를 소개하며, 타 산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화협은 2012년 영화스태프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4대 보험 의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10월25일(화) 14:00 무중력시대 양천(DMZ)에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인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대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며, 전국특성화고노조에서 지난 5월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습기관에 전담지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31.2%)과 산재에 대한 병원의 무관심 또는 예방대책 미비(54.4%)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하은 전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로자성이 짙어졌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및 교육지원 등을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영화스태프에게 과거 직업경력을 인정하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내용의 ‘표준보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표준보수지침\*을 마련,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표준보수지침: 영화 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2022), 영화진흥위원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을 비롯한 불안정 근로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보고, 돕는 것이 경사노위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노사정이 함께 취약노동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와 ‘비정규직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2기 활동을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3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slc**

# 김문수 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

김문수 위원장 “중견기업 애로사항 해결할 것”  
10.28.(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이 10월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최진식 회장을 만나 중견기업 애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심팩(SIMPAC) 빌딩에서 최진식 회장을 만나 “중견기업의 존재는 생소하다. 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더라”면서 “(중견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라 하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상당히 격렬한 게 있다 하는데, 중견기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

김문수 위원장, “자동차 부품회사 많은  
중견기업 애로 해결할 것”

”

최진식 회장은 “멈추면 도태되는 기업의 속성 탓에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중견련은 이날 경사노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근로시간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 정책 환경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문수 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논의”  
11.3.(목),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김문수 위원장은 11.3.(목)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경제단체이자 경사노위 사용자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의 상견례 자리로 중소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김문수 위원장, “국민경제의 근간 중소기업,  
사회적 대화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논의” 당부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slc](#)



# “소상공인 문제 중장기적으로 다룰 사회적 대화 틀 구축해 달라”

- 소상공인위원회 주최 「소상공인계층 사회적 대화 정책간담회」, 11.3.(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회인 소상공인위원회(소상공인위) 주최로 11.3.(목) 대전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소상공인계층 사회적 대화·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660만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김삼희 소상공인위 위원장 등 18명



업종별 소상공인단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소기업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신용회복 재기지원’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물류업 경쟁력 확보’,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이자감면·고정금리 전환 확대’ 등을 논의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기획과 수립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삼을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국정의 핵심과제”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문수 위원장, “660만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



김삼희 소상공인위 위원장(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은 물론,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전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현안 및 구조적·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문수 위원장,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국정의 핵심 과제이며, 경사노위가 앞장설 것”

”

경사노위 소상공인위는 '20.11월에 처음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기준에 관한 대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등을 해왔다. 현재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문제의 공식 의제화를 준비 중이다. 